



이승엽 SBS 야구 해설위원·개그맨 이경규·가수 이승기(왼쪽부터)가 출연하는 SBS '편먹고 072(공치리)'.

사진제공 | SBS

이경규·이승기·이승엽 의기투합 새 골프 예능 '편먹고 072' 굿 샷!

최근 각종 종합편성채널과 유튜브상에서 골프 소재 예능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붐몰을 이루는 가운데 SBS도 관련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16일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편먹고 072(공치리)'이다.

개그맨 이경규와 가수 겸 연기자 이승기, '국민타자' 이승엽 SBS 야구 해설위원이 프로그램을 위해 뭉쳤다. 자기 '편을 먹고' 팀을 구성해 골프 대결을 펼친다. 프로그램 제목처럼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꿈의 스코어로 통하는 '72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연예계에서 '실력자'로 통하는 이경규와 입문 2년차임에도 상당한 실력을 쌓아온 이승기의 은근한 기 싸움이 웃음 포인트로 꼽힌다. 예능프로그램에 처음으로 고정 출연하는 이승엽 위원의 색다른 매력도 볼거리다. 유현주 프로골퍼가 코치로 참여해 이들에게 '꿀팁'을 전수한다.

이들 출연자들은 방송 당일인 16일 오후 3시 제작발표회를 열고 자기 출연 계기와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 등을 밝힐 계획이다. 연출자 안재철 PD 등을 비롯한 제작진은 최근 쏟아지는 골프 소재 예능프로그램 사이에서 보여줄 차별화 지점도 설명할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블랙 위도우’ 흥행 파워...코로나도 이길까?

전국 상영관 절반이 수도권에 있어 7시30분, 8시로 마지막 상영 해야 '100만명 ↑' 흥행세 앞둔 볼투명 28일 개봉 앞둔 '모가디슈'도 한숨

할리우드 슈퍼히어로가 또 다시 한국 극장가에서 강력한 흥행의 힘을 과시했다. 하지만 감염병의 거센 확산세라는 장벽이 다가서면서 긴장의 고삐를 놓지 못하게 됐다.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는 대작들이 잇따라 개봉을 앞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

● '블랙 위도우' 흥행의 힘, 그러나...

7일 선보인 '블랙 위도우'가 4일 만인 10일까지 전국 누적 101만5000여명(이하 영화관람장권통합전산망)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7일 오후 5시 개봉한 점을 감안하면 흥행 파워를 짐작케 한다. 특히 토요일인 10일 43만여명에 이어 일요일인 11일에도 엇비슷한 규모의 관객을 동원했을 것으로 추산돼 그 힘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같은 흥행세가 유지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11일 0시 기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24명으로, 9일 이후 사흘 연속 1300명대를 기록하면서 12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극장이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한 영화 '블랙 위도우'의 한 장면. 감염병 사태 속에서 100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의 흥행 추이가 주목된다. 사진제공 |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수도권을 대상으로 정부가 12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는 '블랙 위도우'의 흥행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 571개 상영관·3239개 스크린·48만246개 상영관 좌석 가운데 절반가량인 각각 261·1574개·141409개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블랙 위도

우' 등 각 상영작의 상영횟수 자체가 줄어드는 탓이다. 한 극장 관계자는 "밤 10시 영입제한 조치로 오후 7시30분이나 8시계 각 영화의 마지막 회차 상영을 해야 한다"면서 "그만큼 관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 총무로·극장가, 다시 위기감

'블랙 위도우'는 그동안 두터운 관객

층을 형성하며 대규모 흥행의 힘을 발휘해온 '어벤져스' 시리즈 등 마블스튜디오의 새로운 슈퍼 히어로물로 극장가의 큰 기대를 모아왔다. 할리우드 영화와 때마다 경쟁해온 한국영화계 역시 코로나19 이전 시절과는 달리 내심 흥행을 바라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극장 관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존폐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는 기대감을 물거품으로 만들 우려를 키운다. 5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를 시작으로 '크루엘라' 등 일부 할리우드 영화와 100만 관객을 넘보는 '발신제한' 등 한국영화의 선전으로 다소 활력을 되찾는 듯했지만 위기감이 다시 찾아온 분위기이다.

28일 '모가디슈'와 '방범:재차의', 8월 11일 '싱크홀', 역시 8월로 잠정 개봉 일정을 확정된 '인질' 등 한국영화 기대작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각 영화의 제작진은 감염병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봉을 예정하며 다양한 홍보프로모션을 펼쳐왔다. 특히 '모가디슈'와 '싱크홀' 등 일부 대작은 극장이 제작비의 절반가량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지원을 받기로 한 만큼 다시 일정을 연기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기를 바라면서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칸에서부터 세계로...이번엔 영화 '블랙핑크'!

데뷔 5주년 맞아 제작한 다큐 영화 칸영화제 필름마켓서 선보이며 주목 한국 이어 해외 100여개국 개봉 예정

그룹 블랙핑크가 이번에는 영화로 전 세계 관객에게 다가선다. 이를 위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적극적으로 영화를 알리며 자신들의 글로벌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다.

블랙핑크는 8월4일 다큐멘터리 영화 '블랙핑크 더 무비'를 개봉한다. 2016년 8월 8일 데뷔한 이후 자신들이 펼쳐온 활약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다채로운 공연 속 멤버 지수·제니·로제·리사의 모

습과 미공개 인터뷰부터 팬들과 함께한 추억의 장면, 10여곡의 히트곡 무대와 리허설 모습 등을 카메라에 담았다.

영화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핀란드, 멕시코 등 6개국에서 우선적으로 선보인다. 이후 미국과 영국 등 해외 100여개국으로 지역을 순차 확대해 개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글로벌 개봉 규모를 말해주듯,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 CJ 4D Plex는 현재 진행 중인 제74회 칸 국제영화제를 영화 프로모션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 칸 국제영화제와 함께 문을 연 칸 필름마켓에서 각국 영화 바이어들에게 영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영화제 개막일인

7일 공식 소식지 가운데 하나인 스크린데일리에 커버 광고를 싣는 등 영화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스크린데일리는 '블랙핑크 더 무비'를 이번 칸 필름마켓에서 주목할 만한 한국영화 가운데 한 편으로 꼽기도 했다. '블랙핑크 더 무비'는 고두심·지현우 주연 화제작 '빛나는 순간', 송중기 주연 '보고자'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는 블랙핑크가 구축해온 글로벌 팬덤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넷플릭스를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 '블랙핑크:라이트 업 더 스카이(Light Up The Sky)'를 선보였다. 당시 한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 등에서 '가장 많이



블랙핑크

본 콘텐츠' 1위에 오르는 등 시선을 모았다. '블랙핑크 더 무비'는 오윤동·정수이 감독이 연출한 영화로, 블랙핑크가 데뷔 5주년을 맞아 펼치는 '4+1 프로젝트'의 첫 무대이기도 하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희소식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 ▶며칠 차고있어 보니 무릎이 부드럽고 이렇게 좋을수가!!
- ▶설명이 필요없다 무조건 2,3일만 착용해보면 느낀다!

名作
名品



무르팍엔이 생각보다...

착용해보니 그것참 신통하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 중 무릎이 불편하면 매사 의욕이 떨어지고 귀찮아진다.

사람은 일생동안 많은 시간을 서서 생활하므로 체중이 아래로 집중되어 무릎에 무리가 오게 되는데 특히 비만인 경우, 다리를 많이 쓰거나, 나이가 들어 노화현상으로 무릎에 대사가 나빠지면 활동하기가 어려워진다.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단, 체중조절이 중요하

며 걷기, 스트레칭, 수영 등 다리에 무리가 가지않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

최근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릎밴드 참 무르팍엔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파장이 방사 및 방출되는 무르팍엔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르팍엔에는 4가지 광물(셀라이트, 그라파이트, 철보석,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의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벼워짐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겹옷 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 보면 정말 만족하실 것이고 이곳저곳 소문 많이 내주세요~

불만족시 무조건 반품하세요!!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르팍엔
1670-5467

휴대용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전기가 필요없는 허리조이의 놀라운 성능

제품명: 허리조이
제조/판매원: 솔원
재원: 길이: 대, 중, 소
두께: 5mm 무게: 210g
제품용도: 불편한 아래에 착용
제품특징: 기압과 반영구적 순발력 가능
제조국: Made in Korea

착용해보시고 확인하세요!



名作
名品

몸이 차가워지면 몸과 마음 그리고 배사의 의욕이 사라지는데 몸이 차가워지면서 생기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는데 필요한 것이 찜질 요법이며 찜질요법은 옛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요법 중의 하나이며 현대의학에서도 많은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되는 추세이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것들은 우리 몸에 냉기가 쌓이면서부터 발생하는 것

이 많다. 우리 조상들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면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 아랫목에서 한숨 쉰 자고나면 온몸이 가벼워지는 찜질 요법이며 찜질요법은 옛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요법 중의 하나이며 현대의학에서도 많은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되는 추세이다.

최근 허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허리조이 발열밴드가 출시되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전기 없이 스스로 피부와의 열교환으로 발열되는 허리조이 발열밴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천연광물에서 나오는 파장이 다양 방사 및 방출되는 제품이다.

허리조이 발열밴트는 4가지 광물질(셀라이트, 그라파이트, 철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며 허리부위를 전기없이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물질이며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밝혀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겹옷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조이
1600-1047